

# 창조신앙과 기독교 환경관

Creation Faith and  
the Christian View of Environment

김농오

## I. 들어가는 말

## II. 본말

1. 자연에 대한 인식

2. 인공구조물에 대한 문화인식

3. 방위·방향 등에 대한 환경인식

4. 우주의 기원 및 인간의 운명과 관련된 환경인식

## III. 결론



김농오

1955년 광주에서 태어나 서울대 조경학과와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목포대학교 조경학과 부교수로 재직중이다. 또한 한국창조과학회와 전국 대학교수선교연합회, 한국 농촌선교회의 임원으로서 봉사하고 있으며, 한사랑 선교회의 법인 이사이기도 하다.

## Abstract

Florence Kluckhohn(1953), an anthropologist, described three general orientations to nature held by people in different cultures and at different times in history : (1) Man as subjugated to nature, living at the mercy of a powerful and uncompromising nature ; (2) Man as above nature, dominating, exploiting, and controlling the environment ; and (3) Man as an inherent part of nature, like animals, trees, and rivers, trying to live in harmony with the environment. Naturally, cultures are not singular in their orientation to nature, and it is likely that, although one of these views may predominate in a given society, and orientation may have elements of the other two. Thus, it is possible that societies hold aspects of all these orientations to one degree or another, although one may be a more salvert force. In the study there are various aspects of environment in the bible

First, God created all creatures and blessed man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replenish the earth, and subdue it ; and have dominion over the fish of the sea, and over the fowl of the air, and over every living thing that moveth upon the earth.' The natural landscape elements have no spiritual meaning and man should cultivate the land, mountain, valley, seashore, the desert, etc. Only the wilderness there are many devils and ghosts.

Second, There are two kinds of culture in the bible. God oriented culture (castle of Jerusalem) and Devil oriented culture (babylon). The former is good and the latter is evil.

Third, Vertical and Horizontal direction dispersed as Jerusalem centered direction and church centered direction and individual centered

direction in the new testament.

Fourth, There are second death and resurrection of the dead. (Rev. 20 : 14, I Corin 15 : 42) the heavens and the earth, which are now, by the same word are kept in store, reserved unto fire against the day of judgment and perdition of ungodly man( II Peter 3 : 7).

And the day of the Lord will come as a thief in the night ; in the which the heavens shall pass away with a great noise, and the elements shall away with a great noise, and the elements shall melt with fervent heat, the earth also and the works that are therein shall be burned up( II Peter 3 : 10). And the first heaven and the first earth were passed away and there was no more sea and new Jerusalem coming down from God out of heaven(Rev 21 : 1, 2).

## I. 들어가는 말

인간과 문화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물리적 환경은 인간과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종래 연구는 많았다. 이러한 연구는 문화양식이 다양하고 인간이 처한 환경의 요소가 복잡한 만큼 상기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을 통한 개념 정리가 되어야 한다. 예컨대, 자연(natural environment)에 대한 인식이나, 인공조형물(built environment)에 대한 문화인식, 방위·방향 등에 대한 종교·철학적 의미, 우주의 기원과 인간의 운명과 연관된 환경인식 등에 있어서 성경적 견해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II. 본말

### 1. 자연에 대한 인식

지금까지 주장된 인간의 대자연관(對自然觀)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인간 우위론(man above nature),<sup>1)</sup> 자연 우위론(man as subjugated to nature)<sup>2)</sup>, 인간 자연 조화론(man as part

1) Ittelson et al, 1974; Nash, 1967; Tuan, 1974에 의하면 이러한 시각은 적어도 두 가지 즉, 서구 사회의 유대 그리스도교의 유산과 과거 200년 동안의 과학 산업혁명에 연유한다고 한다(Altman & Chemers, Culture and Environment, Books Cole, 1980, p.15).

2) 이러한 인식의 경향은 12~15세기 서유럽의 신화나 요정에 대한 태도, 중세의 숲이나 황야에 대한 태도 등에 잘 나타난다(Ittelson, proshasley ...). 이러한 책에서 숲은 악이 인간화된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무섭고 위험하며 빨리 피해야 할 대상이다. 중세의 숲은 또한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 사는 곳이다. Nash(1967)는 “중세유럽의 황야에 제일 중요한 상상의 짐승은 半인간인 Wildman이다. 그의 칙칙한 털로 뒤덮힌 몸뚱아리는 그 시대 예술, 문학작품, 드라마 등에 자주 등장했다.…… Austrian Tyrol and Bavarian Alps에서는

of nature)<sup>3)</sup>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지리적 여건과 문화양식에 따라 견해를 각기 달리하고 있다.

또한 자연을 구성하는 경관요소(landscape element)로서 산(mountains)<sup>4)</sup>이나 계곡(valleys), 해변(seashores), 섬(islands)<sup>5)</sup>에 대

---

Wild Woman이 나오는데 엄청나게 크고 단단한 털, 큰 유방, 찢어진 입을 가지고 애기를 품쳐가고 그 자리에 자기 새끼를 갖다 놓는다”고 했다. 다른 괴물로는 여우, 식인과물, 마녀, 여자의 얼굴에 돼지 몸통에 말다리를 가진 괴물 등이 있다. 고대 그리이스의 숲의 황제 Pan과 관련된 Satyrs라는 부족이 있는데 이들은 술, 춤, 호색에 빠진 염소인간이다. Hellene의 민요에 의하면 Satyrs는 여자를 강간하고 그들의 굴에 모험 온 아이들을 데려가 버렸다. Sileni와 Centaurs가 그리이스 신화에 나오는 숲속의 귀신들을 나타내는데 이것들은 몸통과 머리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말이다(op. cit. p.16).

- 3) 고대 그리이스인들은 자연의 순환과 심지어 삶과 죽음에도 조화와 순환의 성질을 지녔다. 또한 고대 중국에서는 노장사상에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이라 하여 인간이 자연의 질서에 조화내지 순응할 것을 가르쳤다. Zaire의 Ituri 숲에 사는 Pygmy는 숲을 아버지, 어머니처럼 여겼고 Orbiz(1972)에 의하면 Pueblo 인디언들도 태양을 아버지로 지구를 어머니로 생각했다. 태양과 지구는 생명을 주관하고 여름과 겨울, 봄과 가을, 낮과 밤, 생과 사, 성장과 쇠퇴 등의 끊임없는 사이클을 창조했다. 이처럼 시작과 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에는 생성과 재생성의 과정이 연속된 것으로 본 것이다(op. cit. p.21).
- 4) 산을 지구의 중심축 그리고 하늘과의 교량으로 생각하는 것은 중국, 한국, 이란, 아시아 인디언, 독일 등 여러 문화권에 있다. 고대 그리이스인들은 신전을 아테네에서 가장 높은 아크로폴리스에 세웠고, 중동의 계단식 피라밋, 수메리아인의 ziggurats,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밋, 서유럽의 대성당이나 사원 역시 산처럼 하늘에 가까이 세워진 경우가 많았다. 고대 그리이스인들은 산은 신의 집이고 무한한 아름다움의 대상임과 동시에 원시와 황량, 공포의 대상으로 보았고 후기 로마인에게 산은 전체적으로 부정적이고 원치 않은 장소로 인식되어 18세기까지 계속된다. 19세기 들어서 산은 숭고한 장관의 절묘한 미의 극치로 여겨지다가 미 서부개척과 교통의 발달로 산은 일상생활과 매우 친밀한 공간이 되어왔다(Tuan 1974, op. cit., p.30). 동양에 있어서는 신전설이 중국의 춘추전국시대부터 일반화되어 오다가 정원과 건축물에게까지 삼신전설이 반영되어 한국, 일본에까지 산을 신성시 여기는 신앙을 갖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太白山, 長白山, 小白山, 白頭山, 白岳山, 白雲山, 白岩山 등도 신제(神體)로서 산을 白(白)이라 부른데서 연유한다(윤국병, 조정사, 일조각. p.193).

해 인식하고 있는 가치체계 역시 문화양식에 따라 각기 해석을 달리해 온 것이 사실이다. 비교적 산(山)에 대해서는 두렵고 신성시 여긴 반면, 계곡, 해변, 섬에 대해서는 생활의 무대로 여기고 친숙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 나타난 대자연관은 어떻다고 논할 수 있을까? 먼저, 성경에서 보는 자연이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통하여 나타난 피조물이라는 정의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이며 우상숭배란 로마서 1장 25절 말씀처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태양과 달에 유희되는 것도(욥 31:26),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기 말라(출 20:45)는 것도, 땅 위에 있는 자를 아비라 칭하지 말라(마 23:9)는 말씀도 창조주 하나님 외에 인간을 포함한 어떠한 피조물도 두려움이나 경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과 물적 환경으로서 자연과

- 
- 5) 고대 그리이스 사람들은 섬을 영웅이 사는 곳으로 보았고, 중세 유럽인은 섬을 편하고 모든 것이 풍성한 낙원으로 보았다. 중세유럽에서 유행한 Saint Brendan의 전설, 12세기 Anglo Norman 판에 “Brendan은 경건한 사람의 집이며, 폭풍우도 없고 사람들은 낙원의 꽃향기를 맡고 사는 섬을 찾았다”(Tuan 1974, p.119).

섬 낙원의 생각은 유럽인들의 신세계 탐험에도 있었다. 젊음의 분수(fountain of Youth)를 찾아나선 Ponce de León은 Florida를 섬으로 생각했다. 콜럼부스와 다른 사람들은 신세계를 조그마하나 유쾌한 섬 정원으로 보았다. 타히티, 하와이, 보르네오 등 남태평양의 섬들은 서구인들에게 전원적인 곳으로 여겨졌고, 오늘날도 열대지방 섬들이 흔들거리는 아자수, 태양이 이글거리는 해변, 푸른 산호, 열대 정원을 거니는 아름다운 원주민 등의 모습으로 긍정적인 묘사를 한다. 허리케인, 해일, 적대적인 바다생활, 단백질의 결핍, 여러 질병 등을 의면하거나 제한하며, 섬을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푸는 곳으로 여겨오고 있는 것이다(op. cit., p.30).

의 관계에 있어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 분명한 위계질서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인간은 자연(땅,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정복(cultivate)해야 하는 주관자의 위치인 것이다. 다만, 땅을 정복한다는 개념에 있어서 자연을 파괴하며 필요 이상의 자연에 대해 포획하라는 것을 허용한 구절은 성경에 없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오직 일용할 양식 만큼만 제공해 주고 있는 출애굽기의 기록에서도 살펴볼 수 있으며, 정복한다는 의미를 경작한다(cultivate)의 의미로 해석할 때 경작하지 않은 자연을 상대적으로 거칠게 본 다른 성경구절과 비교해 볼 때, 이는 인간이 토지를 경작하라는 문화명령으로 해석해야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토지를 가꾸고 농사를 짓고 토지상에 집을 짓고 문화행위를 하는 것은 인간의 실존과 번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구 상에 마련해 준 인간의 삶의 터전으로 허용된 사실로 보아야 한다.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자연의 살상행위를 허용한 반면, 필요 이상의 살상행위를 엄금하고 있는데, BC 1500년경에 기록된 신명기를 보면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 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신 22:6)<sup>9)</sup>는 계명으로 참새 한 마리도 보호하고 계심을 알 수 있

9) ① 이는 신라의 원광법사의 世俗五戒 중 殺生有擇에서 자연보호 사상보다 시대적으로 앞선다. 「五曰 殺生有擇 若等行之無忽 貴山等曰 他則既受命矣 所謂 殺生有擇 獨未曉也 師曰 六齊曰春夏月不殺 是擇時也 不殺使畜 謂馬牛雞犬 不殺細物 謂肉不足一飧 是擇物也 如此唯基所用 不求多殺 此可謂 世俗之善戒也 貴山等曰 自今已後 奉以周旋 不敢失墜…」(三國史記 列傳 貴山條)

② 이는 고려 예종(1107)代 다음과 같이 모든 만물이 발생하는 시절에 알이나 새끼를 품고 있는 새나 짐승은 죽이지 못하도록 엄금한 것과도 유사하다. 「詔曰 當萬物發生之時, 不廢不卵者 實禮典之成規, 而先王之仁政也」 「田獵無時 或



다. 예수님께서도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마 6:26),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판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마 6:30),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마 10:29)고 하셨다. 못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지, 인간이 주관하는 위치에 있다하여 청지기(steward) 아닌 주인(master) 행세를 하게 된다면 올바른 대자연관을 그리스도인이 정립하지 못한 때문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의

農夫火耕 延燒物命 有乘對時育物之義 足傷 天地之和 一切禁斷 違者罪之(高麗史)

③ 이조 초기에도 산림에 관한 규정 植裁勸獎 山林保護等林政의 실천이 경국대전(1469)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조 후기 정조 때에는 松禁節目이 반포되어 沿海 30里 地域을 비롯 사유림이라 할지라도 伐採를 금하였고 王命으로 293개소의 산림을 封禁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고종 때에는 大典會通(1869)을 통해 종래의 封禁政策을 강화함으로 전 국토의 73%에 달하는 1260萬 町步의 울창한 산림을 보호했고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 원시림을 보존했다(민경현,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위한 자연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12, p.34)

④ 이는 최근 1859 사적 및 풍경보존협회(영국),

1872, 엘로우 스톤 국립공원(미국)

1895, 국가 신탁재산위원회(영국)

1909, 스위스 자연보호연맹(스위스)

1919, 천연기념물과 경관의 보호관리(독일 바이마르헌법)

1931, 국립공원법(일본)

1967, 조수밀수령에 관한 법률(한국) 등의 자연보호 운동보다 3400여년 앞선 기록이다(내무부, 자연보호백서, 1980, p.460).

- 7) Lynn White는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에서 “Both our present science and our present technology are so tinctured with orthodox Christian arrogance toward nature that no solution for our ecologic crisis can be expected from them alone. Since the roots of our trouble are so largely religious, the remedy must also be essentially religious, whether we call it that or not.” (Science 3. 1967. vol.155 No. 3767 p.1207.)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창 9:5)는 말씀에서도 대자연에 대한 인간의 월권 행위를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토지의 경작에 있어서는 안식년(레 25:2~7, 신 15:1~3)을 설정하사 삼라만상이 일만 하지 말고 쉴 수 있도록 하였다. 인간의 과욕으로 인한 경제행위가 필요 이상의 개발과 과로로 땅도 죽고, 바다도 죽고, 공기도 죽고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인간과 생물체가 죽어가고 각종 자원이 고갈되어가는 실정에 이른 것이다. 이는 성경적인 토지 제도가 확립되지 못하는데 큰 원인이 있다 하겠다.

자연의 경관요소 가운데, 에덴동산의 묘사를 통하여 네 줄기의 강물과 각종 진귀한 과일나무가 무성한 동산을 낙원으로 본 것 같다. “거룩한 성 새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에서도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밋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 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조성하기 위하여 있더라”(계 22:1, 2)는 말씀에서도 강물과 실과나무 숲을 낙원으로 보여주고 있다. 고대 페르시아 양탄자에 나타난 정원의 무늬 역시 위와 같은 파라다이스를 상징하는 무늬가 많이 발견되고 중세 서유럽의 수도원 정원 내 회랑식 중정(cloister garden)의 공간 구조와 파라디소 역시 이와같은 낙원관에 근거한 것이다.

성경에 나타나는 산(mountain)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모리아 산; 창 22:2, 출 3:12, 삼상 10:5, 미 4:1~2)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우상숭배하는 장소로(신 12:2, 왕상 14:23, 렘 3:6, 호 4:13) 등장하기도 한다. 때로 산은 환란 가운데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창 19:17, 30, 마 24:16, 히 11:38, 계 6:15) 기도하는 장소로 나타나기도 한다(막 6:46, 눅 6:12, 9:28~29). 또한 산은 휴식처(감람원; 눅 21:37)로 나타나기도 하고, 천사와 만나는 장소(호렘산; 출 3:12, 변화산; 막 9:

2. 마17:1, 시내산; 출19:18<sup>9)</sup>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교육의 장소(막 3:13~14, 마 5:1~)로 나타나기도 하고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일곱산(계 17:9, 비스가, 세일, 스발, 시내, 아라랏, 아바나, 아바림, 할락 → 구바벨론, 앓수르, 신바벨론, 메대-바사, 헬라, 로마, 최종국가(?) 상징)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성경 속에 나타난 산은 국부적인 영역(territory)으로서 신의 거주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생활무대이자 신과 만나는 장소로서 다양하게 인식되어 온 듯하다. 이러한 개념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사 66:1, 마 5:35, 행 7:49)이라는 귀절과 “.....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요 4:21)”는 귀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특정한 공간 속에서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님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산을 신성시하는 것은 이방종교 문화의 구습인 것이며 성경적 관점에서는 산(山) 자체에 영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활동(예배, 기도, 교육, 휴식, 피난처) 무대로서 다양하게 이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본 곳은 광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광야란 물 없는 곳(출 17:1), 사람이 없는 곳(레 16:22), 악한 땅(민 20:5), 위험한 곳(신 8:15), 맹수가 있는 곳(신 32:10), 농사할 수 없는 곳(렘 2:2), 사막과 구덩이, 움푹한 곳(렘 2:6) 등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일이나(마 4:1),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눅 11:24)는 귀절에서도 광야<sup>9)</sup>는 마귀가 있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다.

---

8) 광야의 지명은 가데스, 다메섹, 바라, 사해, 수르, 시내, 신, 에돔 등이 나타난다, 성구대사전, 성서교재간행사. p162

## 2 인공구조물에 대한 문화인식

성경에 나타난 문화의 기원은 말을 하고, 사상의 자유를 얻고, 옷을 지어입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육축과 농경이 이루어졌음)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합하여 가정을 이루면서 문화활동이 이뤄지고 있음을 창세기 1장 ~ 4장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장막을 치고(창 4:20), 음악(창 5:21)과 철기문명을 이루었으며(창 5:22), 방주를 제작하고(창 6:14), 성을 쌓고(창 10:12), 바벨탑(창 11:9, 성과 대)을 쌓고 마침내,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권으로 문화가 분산되어 가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특별히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의 문화(신앙, 율법, 성전, 의식주 등) 외에 이방인들의 문화를 죄악의 문화로 여기는 관점은 성경의 곳곳에 나타나 있다. 왕과 국가의 개념도 이방인의 문화 영역이었으며 이스라엘에게는 오직 가정과 사사, 제사장 그룹의 사회조직이 있었을 뿐이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선과 악의 개념으로 대립시켜 온 관점은 신약에 와서도 이어진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유대인의 태도(요 4:5)나 가나안 여인(마 15:22~24)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에서도 잘 나타난다.

마지막 심판 역시 바벨론 문화의 심판인 것이며<sup>9)</sup> 여기에는 이방인의 문화와 더불어 우상(종교)과 왕권(정치), 상인(경제)체제가 무너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새예루살렘성이 등장하여(계 21:2)<sup>10)</sup>,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만 사는 영원한 천국이 묘사되어 있다.

---

9) 계시록 18:2, 3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10) ..... 이 성은 정입방채(육면체)로 열두 진주문과 열두 기초석이 있다. 이 성의 성벽(성곽)은 열두 보석으로 된 열두 기초석 위에 서 있다. 열두 진주문 위에

또 새하늘과 새땅이 도래하며, 처음 땅과 처음 하늘, 바다도 사라질 것이 예언되어(계 21:1), 총체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이스라엘 문화와, 사탄 중심의 바벨론 문화의 혼합으로 인간의 문화개념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며, 하나님 중심의 이스라엘 문화가 선이요, 사탄 중심의 바벨론 문화가 악이며, 근원적으로는 애덴 동산에서부터 선악과의 혼합된 나무의 상징으로서 죄의 개념을 논하고 있다.

### 3. 방위·방향 등에 대한 환경인식

성경에서는 동서남북에 대한 이방종교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철학적 의미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sup>11)</sup> 다만 천국과 지옥의 수직 개념(vertical dimension)이 분명히 나타나며(눅 16:19~31), 이러한 공간에 대한 수직개념은 “천국은 네 마음 속에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의해 해석된다.

복음전파의 세계사적인 방향이 서쪽으로 진행되어지고(행 16:6~10), 그 중심은 항상 예루살렘이었다(행 1:8) 따라서 A와 Ω지점 역시 예루살렘이며 144,000무리의 유대인이 구원받을 때 이방인을 향

---

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들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고(겔 46:30~40), 열두 기초석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 이름이 새겨져 있다(엡 2:20). 장, 광, 고가 12,000 스타디온(2000km)으로 왕상 6:20에 언급된 지성소의 형태이다. 성곽(성벽)은 144규빗(55cm)인데 이는 두께이든 높이이든 12,000스타디온에 어울리지 않지만 144의 상징적 의미에 더 뜻을 두는 것 같다(계 21:12~17), 오픈 성경, 아가페사, p422

- 11) 옛날 한국에서는 도읍을 정하는 것으로부터 주택에서 방의 배치, 대문의 방향, 이사하는데까지 방위는 깊이 침투했다. 중국에서 전해진 四神符應의 사상에 의해서 도읍이나 주거가 계획되었다. 이 사상은 「丹住宅 左有流水 謂之青龍 右有長道 謂之白虎 前左汚地 謂之朱雀 後有丘陵 謂之玄武爲最貴」라 한 것으로 동에 靑龍, 서에 白虎, 남에 朱雀, 북에 玄武라 하는 방위를 맡은 神이었다고 하는 것이다. 李容樸 外, 「최신 조경학개론」, 선전문화사, p47.

한 구원의 문(전도의 문, 선교의 문)은 닫히게 된다(계 7:4, 롬 9, 10, 11:32).

메시아는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재림하시며 해돋는 곳, 동방에서 천사(계 7:2)들의 경고의 나팔이 불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처럼 구별된 영역으로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성의 공간 인식은 신약시대의 성전 개념이 믿는 무리 개념으로(고전 1:2, 3:16, 고후 13:5) 바뀌고, 번개처럼 세계 만민이 모두 보는 위치에서 재림하실 것에 대한 예언에서 수직개념과 수평개념<sup>12)</sup>이 희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 ① Zaive의 Pygmy의 전설들은 천국이나 하늘, 별에 관한 얘기가 별로 없다. Pygmy로서는 숲이 모든 방향으로 그들을 에워싸고 있고 수직적 차원은 볼 수도 없고 그들 생활에 중요하지도 않다(Turn bull, 1961).

② Tuan(1979)이 제시한 예-기원전 4~6세기 혹은 그 이전부터 중국인은 세계를 수평등심원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구분에서 제국의 수도는 중심에 위치하고 다음 원환은 왕족들의 땅, 그리고 점차 밖으로 나갈수록 덜 복잡하고 사람들이 덜 좋아하는 곳으로 마침내는 야만인과 종의 땅의 되었다. 비슷한 생각은 고대 이집트인과 페르시아인 사이에도 있었다.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을 우수한 문화로 여겼고, 나일 계곡이 문명사회의 중심지이고 나일 계곡을 넘으면 덜 문명화된 사람들이 산다고 믿었다. 페르시아인의 생각도 이와 같았는데 그리이스의 역사가인 Herodotus는 “국가들 중에서 그들은 그들과 가장 가까운 나라를 가장 존중하였고 이들 다음에 사는 사람들은 그 다음으로 존경하였다(Tuan 1974, p.31). 또한 지리적 그리고 수평적인 민족중심주의가 고대 그리이스 지도에 나타난다. BC 5세기에 만들어진 이들 지도는 세계가 물의 띠로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 그렸다. 그리고 성시인 델피와 올림푸스산이 그리이스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그렸다. 중세 기독교의 융성과 더불어 유럽인들의 세계지도도 똑같은 민족중심주의를 나타내게 되는데 차이점은 중요한 종교도시로 예루살렘이 지도의 중심부에 있는 점이었다. 소위 T-O 지도에서도 고대 그리이스인처럼 세계가 바다로 나뉘었다고 믿었다. T 자의 한 획은 나일강 혹은 돈강을 나타냈고 다른 획은 지중해를 나타내어 세계를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나누었고 예루살렘은 중심에 위치하였다. ... 서구인들의 마음과 지도에서 세계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유럽으로 옮겨진 것은 중세에서 20세기 대탐험의 시대였다(op. cit. p.34).

#### 4 우주의 기원 및 인간의 운명과 관련된 환경인식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는 구절로 시작된다. 이는 고대중국의 태극사상(太極思想)이나 음양오행사상, 고대 그리이스인의 이데아에 근거한 우주관이나 인성인형론(人性人形論; Anthropomorphism)에 근거한 12신(神)의 개념과는 다른 유일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신관(神觀)이 분명하다.

우주는 공간과 시간 그리고 물질로 구성되어지며 시간은 하루에서 일곱째 날까지 한 사이클을 이룬다. 일주일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시간 개념이 안식일에 나타나는데, 7년에 1년은 안식년이며 49년마다 회년이 돌아온다. 시간은 태초에서부터 시작하여 A와  $\Omega$ 지점에서 끝이 나며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은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새하늘과 새땅이 나타난다(벧후 3:10, 11).

마귀가 다스리는 우주의 시대는 끝이 나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영원한 천국이 도래한다. 인생은 흠에서 와서 흠으로 다시 돌아가며 부활시에 썩은 육체가 무덤에서 나와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가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과 지옥 심판을 받게 된다. 1차 사망 이후 2차 사망이 있으며, 이는 유허불못 심판으로서 영원한 죽음

---

③ 북캘리포니아의 Turok 인디언들은 그들의 세계를 직경 150mile로 중심이 Klamath River(양식공급)로 구분되고 주위가 바다에 둘러싸인 것으로 생각한다. 지구의 중심은 Klamath 강둑 위 어느 곳에 있었는데 이곳에서 하늘이 만들어졌고 여기에는 하늘과 지구를 연결하는 사다리가 남아 있었다(op. cit. p.35).

④ Kerasan Pueblo 인디언의 우주관에서 지구를 우주의 중심으로 Pueblo 커뮤니티를 지구의 중심으로 여겼다. 그러나 Navajo 인디언은 개인의 거처를 중심으로 한 더욱 개인화된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 Mongol족 역시 각각의 텐트가 중심이 되어 텐트 수만큼 많은 중심을 갖게 된다. ... 미국의 salt lake city는 물론교의 중심지 노릇을 하고 있다(op. cit., p.38).

을 의미한다(…또 저회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른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계 20:10~15)

육체의 부활에 대하여, 성경은 사람의 육체와 짐승의 육체가 다르며 오직 부활은 사람의 부활을 가리킴으로서 다른 자연의 요소들과 인간과의 다른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사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은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첫 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고전 15:35~58) 말씀 속에서 불교의 윤회설이나 고대 그리스인들의 순환론 및 이집트,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우주관 등에 나타나는 운명론<sup>13)</sup>

13) ① Pueblo 인디언의 세계는 애당초 창조되지 않았다. 그저 여기저기 있었다. 그러나 원래 그들의 세계는 오늘날과 달랐다. 지구는 사각형이고 평평했다. 지구는 네 귀퉁이와 중심을 가졌다. 지구표면의 밑에는 4개의 수평한 층이 있었다. 각 층이 하나의 세상이었다. 가장 밑에 있는 세상은 하얀세상, 그 위



가 붉은세상, 그 위가 파란세상이고 파란세상 곧 지표의 바로 밑에 노란세상이 있었다. 원래 사람은 맨 밑의 하얀세계에서 그들의 어머니인 Iyatiku와 살고 있었다. Iyatiku는 큰 천나무와 같은 상록수를 자라게 하여 사람들이 그 나무의 줄기를 잡고 다음 세계로 올라올 수 있게 하였다. 딱딱한 틈을 통과할 때 딱따구리(wood pecker)로 쪼아 구멍을 내고 올라오게 하였다. 사람들은 붉은세계에서 4년 지내고 막바지에 오를 때 오소리로 구멍을 뚫게 하고 먼지가 많이 나자 white wind old man이 나와 먼지를 감싸게 한다. 그리고 매미로 구멍의 주변을 다듬어서 매끄럽게 하였다. 그들은 북쪽의 shipap이라는 곳으로 나왔는데 땅이 풀러 걷기 어려워 산 사자로 하여금 땅을 다지게 하였고 사람들은 남쪽으로 이주하고 Iyatiku는 다시 하얀세계로 내려갔다. 그들은 어느 곳에 머물러 Pueblo를 세웠고 이것을 kashikatchrutiya 혹은 white house라 불렀고, 오래 살았다. 그들은 하늘은 텅빈 공간이 아니라 실제의 것으로 통식의 아치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믿었다. 태양은 아버지로 인식되었고 동, 서, 남, 북의 각 cardinal point와 천장 천저에는 각기 신이 살았을 때 북(바람과 눈의 신), 남(작물을 자라게 하는 신)이 있었고 푸마곰, 샴쌍이, 오소리, 여자, 나무, 천사 등이 있었다. 시간은 순환했고 사람이 죽으면 시체는 묻히나 그 영혼은 shipap으로 되돌아 갔다는 그들의 어머니가 있는 4층 맨 밑 자궁으로 돌아간다. 죽은 자의 혼은 매년 자기 친족을 찾아 음식을 먹고 애기가 되어 다시 태어날 곳으로 갈 때까지 친족을 찾아온다 (op. cit., p.3).

② Oglala Siowx 족도 그들의 생활을 수평과 수직 방향과 각종 자연 현상에 결부시켰다. - 하늘은 둥글다... 바람... 선풍, 새들은 그들의 둥지를 원형으로 만드는데 이는 그들의 종교가 우리의 종교와 같기 때문이다. 달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이다. 심지어 계절도 항상 순환한다. 사람의 삶은 어린애로부터 둥글게 순환한다. 힘이 움직이는 곳에는 모든 게 그렇다. 우리들 더피(인디언 천막집)로 새 둥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서의 고귀한 정신은 우리 자손을 번성시키는 것이었다(op. cit., p.41).

③ 고대 이집트인의 우주론은 American 인디언 문화와 유사한 점이 있다. 나일강의 강둑 양쪽에 기름진 땅이 있었고 그 너머는 사막이어서 아주 강한 대칭성의 우주론을 탄생시켰다. 지구는 우주의 중심으로 여겨졌고 땅 위는 천신의 영역이고 그 밑에는 지하세계가 있는데 이는 지구를 마주 대한 대칭면과 같았다. 나일강은 남북축을, 태양은 동서축을 나타냈고 이러한 강력한 대칭성은 피라미드에도 나타났다. 정사각형의 바닥과 이등변삼각형은 이집트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육체의 부활과 둘째사망의 운명관이 나타난다.

### III.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 속에 나타난 자연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인공조형물에 대한 문화인식, 방위·방향 등에 대한 환경인식, 우주의 기원 및 인간의 운명에 관한 환경인식 등을 여러 측면에서 논해 보았다. 문화현상이 다양하고 환경이 복잡한 생태체계와 인간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 역시 여러가지 측면에서 보완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특히 환경에 대한 인식 및 종교성, 가치체계 등의 관점에서 주로 논하였으며 기독교의 중심사상인 성경을 중심으로 기독교 환경관의 개념을 정리해 보았다. 연구 결과, 성경에서는 인간과 피조물(우주) 전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며, 물질 대상으로서의 자연은 인간의 숭배의 대상도(우상), 인간의 운명을 지배하는 어떤 속성도 아니며 단지 인간의 삶의 무대요 인간이 다스리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서 파악되어진다. 다만 광야(사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며 마귀가 사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다.

인간이 만든 조물계 요소와 각종 문화행위는 악으로 보아왔고 이 방문화의 상징인 바벨론을 악의 총체로,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의 거

---

인 생활의 다른면에도 표현되는 대칭성에 대한 복구를 강조한다(Tuan 1974, p.87).

④ 고대 중국인은 동쪽은 봄, 나무, 녹색, 화와 관련되어 있고, 남쪽은 봄, 여름, 빨간색, 기쁨과 관련되어 있고, 북쪽은 겨울, 물, 검정색, 공포 등과 관련되어 있다고 믿었다. Pueblo 인디언들은 주방향에 동물, 신, 색깔 등을 연관시켰는데 동쪽은 흰색, 새같은 신, 여우, 남쪽은 붉은 색, 농작물을 자라게 하는 신, 싹쟁이와 연결시켰다(op. cit., p.41).

룩한 성 새예루살렘에 대한 모형을 선으로 인식해 왔다. 이러한 공간개념은 교회개념으로 신약시대에 바뀌며 교회는 세속문화권 속에서 세속 문화와 세속 문명(조형계)과 싸우며 거룩함을 지켜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교회가 기독교 문화와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지 못할 때 기독교 문화권이 이방문화권에 흡수되어 버린 예를 소아시아 지방과 유럽교회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방위·방향에 있어서 수직개념과 수평개념은 신약시대에 와서 교회중심, 개인중심의 구심체가 이뤄지며 이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믿음에 근거한다. 공간적으로는 예루살렘은 항상 세계사의 중심을 이루었고 구원섭리의 종지부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주의 기원과 인간의 운명에 관해서 성경은 우주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인간은 육체의 부활을 통하여 둘째사망(유황불못 심판)이 있게 되며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을 계시한다. 새하늘과 새땅이 도래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예언되어 있다.

## 참고문헌

1. 林吉鎮, 자연보존과 이용효율을 고려한 국립공원에 관한 연구, 서울 공대 석사학위논문, pp1~10.
2. 민경현,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위한 자연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 조경학회지, 12호, p34.
3. 내무부, 자연보호백서, 1980, p434~462.
4. 대한성서교재사, 성구대사전.
5. 오픈 성경, 아가페사.
6. Irwin Altman, Martin M. Chemers, Culture and Environment, 1980. pp.1~42.
7. Lynn White, Jr.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 Crisis, 3. 1967. Vol.155, No.3767, Science, pp.1203~1207.